DOI: https://doi.org/10.28977/jbtr.2011.10.29.59

누가의 '예수의 죽음' 이해(눅 23:44-49)

강선남*

1. 들어가는 말

누가에게는 '십자가의 걸림돌(scandal of the cross)'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1]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피츠마이어(J. A. Fitzmyer)는 누가가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2] 핸헨(E. Haenchen)은 누가와 그의 공동체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봄으로써 '십자가의 걸림돌'을 극복하였다고 주장한다.[3] 한편 퍼보(R. I. Pervo)는 누가에게 '십자가의 걸림돌'이 없다는 지적은 과장된 것이지만, 누가는 그 걸림돌을 자랑으로 여기기보다는 완화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다고 평가한다.[4]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23:44-49는 마가의 병행본문(15:33-41)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사건의 전개 순서가 다르다. 마가에서는 예수가 숨을 거둔 다음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데 반해(15:38), 누가에서는 예수의 죽음에 앞서 이 일이 일어난다(23:45). 둘째, 마가에서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지만(15:36), 누가에서는 이에 관한 언급이 없다. 반대로 누가는 예수의 죽음과 백인대장의 선언 뒤에 군중의 반응('가슴을 치다')을 묘사하고 있는데(23:48), 마가에는 이에 관한 말이 없다. 셋째, 마가와 누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르다. 먼저, 누가는 낮 열두시부터 오후 세시까지 땅에 어둠이 덮인 것을

* 서강대학교 강사, 신약성서 신학.

1) 예를 들어, 타이슨은 십자가의 '걸림돌'(고전 1:23)이나 '저주'(갈 3:13)를 말한 바오로와는 달리 누가가 '예수 죽음의 신학적 이유를 파악하거나 그 죽음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였는지에 관해서 무관심하였다'고 주장한다. J. B. Tyson, *The Death of Jesus in Luke-Act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6).

2) J. A. Fitzmyer, *The Acts of the Apost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1 (New York: Doubleday, 1998), 255.

3) E. Haenchen,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Commentary*, B. Noble and G. Shinn, trans. (Oxford: Blackwell, 1985), 180.

4) R. I. Pervo, *Acts*: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81.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23:45), 마가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또한, 누가에서 예수의 마지막 외침은 시편 31:6(LXX 30:6)인 반면에(23:46), 마가(15:34)에서는 시편 22:2이다. 마지막으로, 마가에서 백인대장은 예수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반면에(15:39), 누가에서는 예수를 ‘의로운 분’[5]이라고 한다(23:47).[6]

이것들 가운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두 복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의 최후의 말이다. 마가와 이를 따르는 마태복음(27:46)에는 시편 22:2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나오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시편 31:6의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가 그것을 대신한다. 곧 누가복음에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십자가의 ‘걸림돌’, ‘수치’가 되게 한 버림받은 예수의 탄식 대신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예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에 주목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23:44-49를 기초로 하여 ‘예수의 죽음’에 대한 누가의 이해, 곧 그의 십자가 신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은 누가의 다른 작품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의 베드로 설교(2:14-41)에도 나온다. 그렇지만 누가의 십자가 신학에 대한 기존 연구 대다수는 누가복음 본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것과 사도행전 2장과의 연관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나마 누가복음 23:46의 시편 31편 인용문과 사도행전 2:25-28에서 인용되고 있는 시편 16편과의 관련성을 논의한 학자로는 본스(E. Bons)와 네이레이(J. H. Neyrey) 정도뿐이다.[7] 본 연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각각 인용된 시편 31편과 16편 사이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한 누가복음 23:44-49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오순절 베드로 설교 전체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두 본문 사이의 상호성(intertextuality)에 기초하여 누가의 ‘예수의 죽음’ 이해를 고찰하고자 한다.[8]

---

5) 그리스어 ‘디카이오스(δίκαιος)’에 대한 해석과 이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을 참조하라.

6) 이 밖에도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에 관한 묘사가 마가(‘여자들, …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들은 예수가 갈릴래아에 있을 때부터 그를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15:40-41)와 누가(‘예수의 모든 친척과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를 함께 따라온 여자들이 지켜보았다.’ 23:49)에서 다르다.

7) E. Bons, “Das Sterbewort Jesu nach Lk 23,46 und sein alttestamentlicher Hintergrund”, *BZ* 38 (1994), 93-101; J. H. Neyrey, *The passion according to Luke: A Redaction Study of Luke’s Soteriology* (Mahwah: Paulist, 1985).

8) ‘본문 상호성(intertextuality)’이란 공시적으로 성서 본문들이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이세는 이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본문들 사이의 관계로 보기를 제안한다. “it is best used as an ‘umbrella’ term for the complex interactions that

같은 저자의 글에서 상호 관련 있는 본문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더 넓은 문맥 안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첫째, 누가복음 23:44-45의 땅에 어둠이 덮이고 해가 빛을 잃었다는 누가의 설명과 사도행전 2:17-21에서의 요엘 인용문과의 관련성, 둘째, 누가복음 23:46에서의 예수의 최후의 말인 시편 31:6 인용문과 사도행전 2:24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묘사한 암시문, 그리고 사도행전 2:25-28에서의 시편 16:8-11 인용문과의 관계, 셋째, 누가복음 23:47에서 백인대장이 예수를 두고 '의로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시편 16:10과 관련하여 유대교에서 부활 사상의 발전과의 관계, 넷째, 누가복음 23:48에서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던 군중들이 가슴을 치는 장면과 사도행전 2:37에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과의 유사성이다. 이들 각각의 연구 단계마다 누가가 여기에서 수행한 문학 작업과 더불어 그의 신학적인 의도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누가복음 23:44-49에 나타난 '예수의 죽음'에 대한 누가의 이해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2. '해가 빛을 잃다': 누가복음 23:44-45와 사도행전 2:17-21의 요엘 인용

누가복음 23:44-45

Καὶ ἦν ἤδη ὡσεὶ ὥρα ἕκτη καὶ σκότος ἐγένετο ἐφ' ὅλην τὴν γῆν ἕως ὥρας ἐνάτης τοῦ ἡλίου ἐκλιπόντος, ἐσχίσθη δὲ τὸ καταπέτασμα τοῦ ναοῦ μέσον.

그리고 이제 낮 열두 시쯤 되었고, 어둠이 세 시까지 온 땅에 덮였다. 해가 빛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성전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9]

사도행전 2:20

ὁ ἥλιος μεταστραφήσεται εἰς σκότος καὶ ἡ σελήνη εἰς αἷμα, πρὶν ἐλθεῖν ἡμέραν κυρίου τὴν μεγάλην καὶ ἐπιφανῆ.

그 크고 빛나는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변할 것이다.

---

exist between 'texts'(in the broadest sense)." S. Moyse, "Intertextuality and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S. Moyse, ed.,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Essays in Honour of J. L. Nort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41.

9) 특별히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한 본 논문에서 성경의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 장면 묘사에서 마가(15:33)와 누가(23:44) 모두 낮 열두 시부터 오후 세시까지 어둠이 땅을 덮었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누가만이 그 어둠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한다(23:45). 여기에서 해가 '꺼지다, 빛을 잃다(ἐκλείπω)'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를 두고 해의 '일식(eclipse)'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10] 파스카 축제가 보름에 행해지는 것으로 보아 일식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기되었다.[11] 또는 이 장면에서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과 성전 휘장 가운데가 찢어졌다는 표현(45절)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며, 우주적 재앙을 동반하는 예수의 죽음은 온 땅에 불길한 조짐을 암시한다는 견해도 있다.[12] 이 단어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이든 간에, '해가 어두워지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야웨의 심판의 날인 '주님의 날'(암 8:9; 욜 2:10; 3:4; 습 1:15)을 생각나게 한다.[13] 이를 토대로 하여 보면, 누가복음에서 천체의 변화는 예수의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곧 종말론적으로 중요한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14]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누가복음의 이 표현이 사도행전 2:17-21에서의 요엘 인용문(LXX 2:28-32) 한 구절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누가는 요엘 인용문을 통해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을 '마지막 날들(αἱ ἐσχάται ἡμέραι)'의 성취라고 주장하는데(행 2:16-17),[15] 여기에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의 우주의 종말론적인 상황은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묘사되고 있다(행 2:20). 보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맞기

---

10) J. F. A. Sawyer, "Why Is a Solar Eclipse Mentioned in the Passion Narrative (Luke XXIII 44-45)?", *JTS* 23 (1972), 124-128; L. T. Johson, *The Gospel of Luke*, Sacra Pagina Series 3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379.

11) R. H. Stein, *Luk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24 (Nashville: Broadman, 1992), 595.

12) J. Nolland, *Luke 18:35-24:53*, WBC 35c (Dallas: Word, 1993), 1158. 피츠마이어는 지중해 바람, '시로코'는 해를 덮어 어두워지게 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J. A. Fitzmyer,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B 28A (New York: Doubleday, 1985), 1518.

13) 구약성경의 '주님의 날'에 대해서는 K. J. Cathcart, "Day of Yahweh", *ABD* II, 84-85; R. I. Hiers, "Day of the Lord", *ABD* II, 82-83 등을 참조하라.

14) 참조, D. L. Bock, *Luke 9:51-24:53*,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6), 1858-1859. 한편 브라운(R. E. Brown, *The Death of the messiah, from Gethsemane to the Grave: A Commentary on the Passion narratives in the Four Gospels*, Anchor Bible Reference Library [New York: Doubleday, 1994, 1042-1043])은 여기에서의 '어둠'을 누가복음 1:78-79에서 '빛으로서의 예수'의 모습과 대조되는 신학적인 상징으로 본다.

15) 참조, 강선남, "오순절 베드로 설교와 구약성서: 사도행전 2,14-41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전승과 해석과 적용", 박사학위논문(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169-170.

직전과 '주님의 날'이 오기 전의 우주적인 상황이 비슷하다.[16] 따라서 누가는 '해가 빛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예수의 죽음에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부여하고,[17] 이 사건이 세상의 '마지막 날들'로 향해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18] 그리고 '마지막 날들'은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가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그 성취가 시작된다.[19]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위의 두 본문 사이에는 문학적인 대응점과 더불어 두 본문을 이어주는 신학적인 사고의 발전도 발견할 수 있다.

3. 예수의 마지막 외침: 시편 31:6(MT) 인용

누가복음 23:46

καὶ φωνήσας φωνῇ μεγάλῃ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πάτερ, εἰς χεῖράς σου παρατίθεμαι τὸ πνεῦμά μου. τοῦτο δὲ εἰπὼν ἐξέπνευσεν.

그리고 예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당신 손(들) 안에 내 영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서 숨을 내쉬었다.

LXX 시편 30:6a

εἰς χεῖράς σου παραθήσομαι τὸ πνεῦμά μου

'당신의 손(들) 안에 내 영을 맡길 것입니다.'

MT 시편 31:6a

בְּיָדְךָ֣ אַפְקִ֣יד רוּחִ֑י

'당신 손에 내 영을 맡길 것입니다.'

마가와 마태복음에서 절망에 찬 예수의 외침(시 22:2) 대신에, 누가복음의

16) 바렛은 사도행전 2:19에서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변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23:43-45의 십자가 위의 예수의 죽음에 관한 '예형론적'인 암시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서 두 본문의 상호 역동성을 지적한다. C. K.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1. ICC (Edinburgh: T & T Clark, 1994), 106-107. 이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학자로는 F. F. Bruce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68], 61-62), W. J. Larkin (*Acts*. The IVP New Testament Series [Downers Grove,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5], 53) 등이 있다.

17) 스타인은 땅에 어둠이 덮였다는 것과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는 표현은 하님의 계획의 성취와 더불어 예수의 죽음이 새로운 계약을 시작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R. H. Stein, *Luke*, 597.

18) 참조, F. J. Matera, "The Death of Jesus according to Luke: A Question of Sources", *CBQ* 47 (1985), 475.

19) 참조, P. T. O'Brien, "Mission, Witness, and the Coming of the Spirit", *BBR* 9 (1999), 210; F. F. Bruce, "The Holy Spirit in the Acts of the Apostles",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27 (1973), 172.

예수의 마지막 말은 시편 31:6에서 왔다. 누가복음에서 이 시편의 사용을 고찰하기에 앞서 히브리어 시편 31편의 의미와 누가복음 24:46에서의 본문 문제, 그리고 유대교에서의 시편 31편 전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3.1. 시편 31편

시편 31편은 개인 탄원시로 알려져 있다. 시인은 기도와 탄원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2-19절), 주님에게 그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확신하고는 감사와 찬미를 올린다(20-25절).[20] 시인은 자신에게 수치를 입히려는 적에게서 구해줄 것을 하나님에게 간구한다(2절). 시인의 원수는 그를 공격하고(3-4절), 그를 붙잡으려고 그물을 쳐 놓아(5절), 시름과 괴로움과 슬픔에 잠기게 한다(10-11절). 원수 때문에 그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에게 놀라움이 되며 보는 이마다 피해 가는' 존재가 된다(12절). 이러한 원수 앞에서, 시인은 주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다. 그는 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자신을 구원하실 것임을 믿고 있다. '당신 손에 내 영을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6절). 시편 31편에서 고통 받는 의인은 자신의 운명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신뢰를 표현하며 자신을 적으로부터 구해주실 것을 간구한다. 이 시의 마지막은 '실제로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감사와 찬미로 끝난다(25절).

3.2. 본문 문제

누가는 칠십인역 시편 30:6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칠십인역의 '맡기다'를 뜻하는 동사의 미래형('맡길 것입니다 παραθήσομαι') 대신에 현재형, '맡깁니다(παρατίθεμαι)'를 사용하였다. 이는 현재의 상황에 맞춘 누가의 의도적인 변경으로,[21] 예수가 하나님에게 자기 '영(πνεῦμα)'을[22] 맡기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임을 암시한다.[23] 둘째, 인용문에 '아버지(πάτερ)'라는 말을 삽입하였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자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10:21; 11:2; 22:42; 23:34)을 상기시킨

20) 참조, P. C. Craigie, *Psalms 1-50*, WBC 19 (Dallas: Word Books, 1983), 258-260; J. L. Mays, *Psalms*, Interpretation (Louisvill: John Knox Press, 1994), 142-145: A. 바이저, "시편 (1)』, 김이곤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2), 368-369. 시편 22편, 28편, 41편에서처럼, 이 시는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뒤에 제의 공동체의 예배에서 낭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1) T. Holtz, *Untersuchungen über die Alttestamentichen Zitate bei Lukas* (Berlin: Akademie -Verlag, 1968), 58.

22) 여기에서 '영(πνεῦμα)'은 인간 존재 전체를 나타낸다. J. A. Fitzmyer, *Luke*, 1519.

23) F. J. Matera, "The Death of Jesus", 476.

다. 하나님과 예수의 친밀한 관계를 암시하며,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24] 셋째, 히브리어 본문의 단수인 ‘당신의 손에(בְּיָדְךָ)’를 칠십인역을 따라 ‘당신의 손들에(εἰς χεῖράς σου)’라고 하였다.[25]

3.3. 자료 문제

후기 랍비 전승에서 시편 31:6은 저녁 기도로 사용되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에게 밤 동안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여 달라고 청하였다.[26] 마샬(I. H. Marshall)은 이 기도가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에 드리는 것이고 잠을 죽음으로 가는 문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죽음을 맞기 전 인생의 황혼기에 드리는 데 적당한 기도라고 지적한다.[27] 따라서 초기 그리스도교 전례 전통과 누가복음에서의 시편 31:6 사용과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으나, 이 기도가 이렇게 사용된 것은 후기 시대이므로 이것과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28] 다시 말하여, 시편 31:6이 전례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23:46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누가가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에서 시편 22:2 대신에 31:6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두고, 그 자료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누가가 이 본문(눅 23:44-49)을 마가의 자료에 기초하여 편집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마가의 자료 이외에 다른 전승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학자들의 의견이 대립한다.[29]

---

24) U. P. McCaffrey, “Psalm Quotations in the Passion Narratives of the Gospels”, *Neot* 14 (1981), 82.

25) 참조, G. L. Archer and G. Chirichigno, *Old Testament Quotations in the New Testament*: *A Complete Survey* (Chicago: Moody Press, 1983), 66-67.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은 ‘보호’를 가리킨다.

26) H. L. Strack and P. 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h*: *Das Evangelium nach Markus*, *Lukas und Johaness und Die Apostelgeschite*, vol. 2 (München: Beck’sche, 1924), 269; J. A. Fitzmyer, *Luke*, 1519.

27) I. H. Marshall,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8), 876.

28) 참조, D. Bock, *Proclamation From Prophecy and Pattern: Lukan Old Testament Christology*, JSNTSup 1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147; J. A. Fitzmyer, *Luke*, 1519.

29) 마가 자료에 기초한 누가의 편집을 주장하는 학자들로는, G. Schneider, *Das Evangelium nach Lukas*, vol 2, Ökumenischer Taschenbuch-kommentar 3 (Gütersloh: Mohn, 1977), 486; F. J. Matera, “The Death of Jesus”; J. H. Neyrey, “The passion according to Luke” 등이 있고, I. H. Marshall (*The Gospel of Luke*, 874)이나 J. A. Fitzmyer (*Luke*, 1519)도 다른 자료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한편 V. Taylor (*The Passion Narrative of St Luke: A Critical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72])는 누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다가 마가의 자료를 더하여 이야기를 재구성하였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마가가 15:34에서 시편 22:2를 인용하고 있지만, 15:37에는 예수가 숨을 거두기 전에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질렀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의 두 번째 외침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복(D. L. Bock)은 이를 기초로 하여, 누가가 마가의 수난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시편 31편은 그 자료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30] 누가가 마가의 자료 이외에 추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31] 그렇다고 누가가 다른 자료를 그대로 자기 글에 적용한 것은 물론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누가복음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23:44-49)는 누가의 다른 자료 전승 가능성을 포함한 편집의 결과라고 보겠다. 그가 추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서, 시편 22:2 인용문은 제외하고 시편 31:6만 사용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3.4. 누가복음(23:46)의 시편 30:6(LXX) 사용

시편 30편의 시인이 적에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구원을 청하고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영'을 그분 손에 맡긴다. 누가복음에서 사용된 시편 30:6은 구약성경에서의 본디 의미가 변화되었다기보다는, 기도하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곧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예수를 위험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보호하는 분으로 암시된다.[32]

누가복음의 예수의 죽음 이야기의 해석적 열쇠는 종종 이사야 53장[33]으로 지적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예수의 마지막 외침과 백인대장의 말(눅 23:47)을 이사야 53장의 '주님의 종'의 모습과 연결시킨다. 슈베머(A. M. Schwemer)는 누가복음 22:37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53:12('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와 사도행전 8:30-35에서 필리포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을 해석해 주고 있는 이야기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이사야 53장은

30) Bock, *Proclamation*, 147. 놀랜드(*Luke*, 1158)는 이를 'pre-Lukan impulse'라고 한다.

31) 맥카프레이 역시, 누가가 예수의 수난 이야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을 보면, 그가 마가나 마태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U. P. McCaffrey, "Psalms Quotations", 87.

32) D. W. Pao and E. J. Schnabel, "Luke", G. K. Beale and D. 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399.

33) 이사야 53장은 초기 팔레스티나 유대교에서 메시아적으로 해석되었다. 참조, J. Jeremias, "Zum Problem der Deutung von Jes. 53 im palästinischen Spät-judentum", *Aux sources de la tradition chrétienne* (Neuchâtel: Dealachaux, 1950), 113-119.

에티오피아 내시뿐 아니라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테오필로스와 모든 독자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기초라고 주장한다.[34]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죽임을 당하러 가는 어린 양과 비교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에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모습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δοῦλος 17절)'이며 '의로운 사람(δίκαιος 19절)'이라고 말한다. 누가가 22:37에서 예수의 수난 이야기를 이사야 53장의 지평선상에 놓았기 때문에, 예수의 그러한 모습이 시편 30:5에 의해 명확해진다고 지적한다.[35]

그렇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벡(B. E. Beck)은 누가가 어떤 면에서 예수의 죽음을 고난 받는 종의 성취로 보았다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누가가 이 주제를 사용한 것을 두고 그가 예수의 죽음에서 '대속적인 의미'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36] 오히려 누가복음의 예수의 마지막 외침은 예수의 죽음 상황과 그것을 수용하는 그의 태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서 칠십인역 이사야 53:11에 '디카이오스(δίκαιος)'라는 단어가 주님의 종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해서 누가복음 23:47에서 백인대장의 말이 이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한다.[37] 젠레(R. Zehnle) 역시, 누가가 묘사한 예수의 죽음에 이사야 53장의 영향을 인정한다고 해도 '주님의 종'의 개념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하며, 이에 대해 회의적이다.[38] 즉 누가에게는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개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4) A. M. Schwemer, "Jesu letzte Worte am Kreuz (Mk 15,34; lk 23,46; Joh 19,28ff)", *TBei* 29 (1998), 20-22. J. A. Fitzmyer (*Luke*, 1516)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마샬은 누가복음 23:34의 배경에도 이사야 53:12가 있다고 주장한다. I. H. Marshall, *Luke*: *Historian and Theologia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0), 172.

35)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희생 행위에 동의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자발적인 희생의 특성은 고대 유대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의 희생제물 예식에서 중요한 전제이었다. 참조. Plutarch, *Questionum convivialum libri LX* 8.8.3 "사람들은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동의의 의미로 머리를 흔들고 그 위에 헌주가 부어지기 전까지 그 짐승을 죽이지 않도록 조심하였다." Pao and Schnabel, "Luke", 399에서 재인용.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36) B. E. Beck, "'Imitatio Christi' and the Lucan Passion narrative", 43.

37) 벡은 고통 받는 의인에 관한 언급을 지혜서 1:16-3:9와 연결시킨다. 그리고 지혜서에서 묘사된 고통 받는 의인이 누가의 의도를 조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Ibid., 43. 그러나 누가가 지혜서 전승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마음에 두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를 써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38) R. Zehnle, "The Salvific Character of Jesus' Death in Lucan Soteriology", *TS* 30 (1969), 441-442.

본 연구에서는 예수의 죽음과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는 '주님의 종'의 주제와의 연관성을 소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누가가 묘사하는 예수의 죽음에는 대속적인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수의 수용 태도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누가의 의도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누가가 시편 30:6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는 십자가 위의 예수의 최후의 장면을, 오순절 베드로 설교(행 2:17-41)와의 연관성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본문 모두 명시적으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3.5. 오순절 베드로 설교와 시편 30:6

사도행전 2:24-28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한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구약성경에서 가져온 암시문 하나와 인용문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곧 예수를 죽음의 진통에서 풀어주시고 일으키셨다(ὃν ὁ θεὸς ἀνέστησεν λύσας τὰς ὠδῖνας τοῦ θανάτου)'고 말한다(행 2:24a). 누가는 여기에서 칠십인역 열왕기 2권 22:6; 시편 17:5; 114:3에 나오는 표현, '죽음의 진통들(ὠδῖνες θανάτου)'을 사용하여 예수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39] 그는 아이를 낳는 여인의 '해산의 진통'처럼 예수의 죽음을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해산의 진통이 풀리는 것처럼 죽음의 고통이 풀린다고 한다.[40]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이 표현은 마가에서 버림받은 예수가 절망 속에서 외친 시편 22:2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말과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예수의 절규로는 이 구절이 누가가 제시한 시편 30:6의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보다 적절하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진통에서 풀어주시고 일으키셨다'라는 24절 전체와 함께 보면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편

39)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LXX 열왕기 2권 22장)은 다윗 임금이 그의 적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노래이다. 이 시는 시편 18편(LXX 17편)에 약간의 철자와 문법적인 변화와 함께 감사시로 수록되었다. 한편 시편 116편 3절(LXX 114:3)에는 시편 18:6이 인용되고 있다. 참조, C. A. Briggs, *The Book of Psalms,* vol. 1.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Edinbrugh: T. & T. Clark, 1969), 137-162; A. A. Anderson, *2 Samue*l, WBC 11 (Dallas: Word Books, 1989), 257-265; P. C. Craigie, *Psalms 1-50*, 166-177.

40) '해산의 진통들'은 '죽음의 오랏줄들'(חבלי־מות)이라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22:5-6; 시편 18:5-6; 116:3에 나오는 표현에서 칠십인역 번역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칠십인역은 죽음의 고통과 괴로움에 둘러싸인 시인의 모습을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에 비유하여 옮겼다. 참조, 강선남, "오순절 베드로 설교와 구약성서", 109.

22:2와는 달리, 시편 30:6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24의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구하셨다’는 내용에 더 부합하는 것은 시편 30:6이다. 결과적으로 누가복음 23:46에서 시편 30:6을 통한 예수의 기도는 사도행전 2:24의 ‘죽음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는 말은 예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일으키신 것은, ‘예수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선언한다(행 2:24b). 그런 다음에 그가 왜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는지를 시편 15:8-11(LXX)을 인용하며 예수의 부활예고에 대해 증언한다(행 2:25-28).[41]

여기에서 우선 주목할 구절은 시편 15:10이 인용된 사도행전 2:27이다. ‘당신께서 내 목숨을 저승으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의 거룩한 이가 썩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ὅτι οὐκ ἐγκαταλείψεις τὴν ψυχήν μου εἰς ᾅδην οὐδὲ δώσεις τὸν ὅσιόν σου ἰδεῖν διαφθοράν).’[42] 누가가 따르고 있는 칠십인역 본문은 히브리어 시편 16:10의 ‘당신께서 내 목숨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가 구렁을 보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כִּי֤ ׀ לֹא־תַעֲזֹ֣ב נַפְשִׁ֣י לִשְׁא֑וֹל לֹ֥א־תִתֵּ֥ן חֲסִידְךָ֗ לִרְא֥וֹת שָׁחַת)’에서 중요한 의미 변화를 만들어 놓았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죽음의 위험에 처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다면, 칠십인역은 이러한 변화들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저승에서 육신의 소멸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을 통하여 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곧 예수의 ‘혼’(ψυχή)이 저승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썩는 것(διαφθορά)’을 경험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 ‘저승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은 저승, 곧 죽음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수의 혼이 저승으로 가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유대교에서도 시신은 사흘 뒤에야 안장하였는데, 그리스도는 그 전에 부활하였기 때문이다.[43] 시편 15편 시인의 이 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영’을 맡기는 예수의 신뢰의 기도와 일치한다.

---

41) 시편 15편은 ‘신뢰 시편’에 속한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때 이른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참조, C. A. Briggs, *The Book of Psalms*, 117-118; A. A. Anderson, *Psalms, 1-72* (Grand Rapids: Eerdmans, 1972), 146; P. C. Craigie, *Psalms 1-50*, 155-156.

42) 시편 15:10은 사도행전 2:31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그는 저승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신은 썩는 것을 보지 않았다.’)로 다시 인용되고 있다.

43) 참조, J. Dupont, “Messianic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Salvation of the Gentiles*: *Essay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John R. Keating, trans. (New York: Paulist Press, 1979), 103-128.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위의 예수의 마지막 말의 의미는 사도행전 2:25-26에 인용되고 있는 시편 15:8과 9절에서도 잘 나타난다. 누가가 시편 15:8의 '나는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서 보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προορώμην τὸν κύριον ἐνώπιόν μου διὰ παντός, ὅτι ἐκ δεξιῶν μού ἐστιν ἵνα μὴ σαλευθω)'에서 하나님이 항상, 십자가 위에서조차 예수와 같이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면, 그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에 시편 22:2를 넣지 않은 이유가 쉽게 이해된다.[44] 또한 시편 15:9의 '이 때문에 내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혀는 뛰놀았습니다. 내 육신마저도 희망에 머물 것입니다.(διὰ τοῦτο ηὐφράνθη ἡ καρδία μου καὶ ἠγαλλιάσατο ἡ γλῶσσά μου, ἔτι δὲ καὶ ἡ σάρξ μου κατασκηνώσει ἐπ' ἐλπίδι)'에서 이 시를 그리스도 자신의 노래라고 볼 때,[45] 여기에서 '희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자리한 희망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누가는 시편 15:8-11을 통하여 예수 부활 예언을 증언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의 죽음의 순간을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죽음의 순간에 예수가 당신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다는 시편 30:6을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페쉬(R. Pesch)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그 순간에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육신은 희망 안에 머물고, 그의 혼은 저승에 주어지지 않고 썩지 않는다."[46]

네이레이(J. H. Neyrey)는 시편 30:6과 시편 15:8-11의 내용이 같다고 주장한다. 두 시편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죽은 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뢰를 표현한다는 것이다.[47] 네이레이는 그 근거로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9:22; 18:33; 22:69; 23:43, 46; 24:7, 26:44-46)를 제시하고, 그 예고는 시편 15:10의 '당신의 거룩한 이가 썩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48] 따라서 누가복음 23:46에서 예수의 마지막 말은 죽은 이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언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본스(E. Bons) 역시, 사도행전 2:25-28은 누가가 왜 예수의 마지막 말을 시편 22:2 대신에 30:6으로 바꾸었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말한다.[49] 그는 칠십인

---

44) C. K. Barrett, *The Acts of the Apostles*, 144.

45) 베드로는 다윗이 이 시를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고 노래한 것으로(행 2:31), 예언자인 다윗이(행 2:30)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말하고(행 2: 25) 있다고 밝힌다. 다시 말하여 다윗은 메시아라는 인물로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누가에게 시편 15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된다. 강선남, "오순절 베드로 설교와 구약성서", 123-124.

46) R. Pesch, *Die Apostelgeschichte,* vol. 1, EKKNT 5:1-2 (Neukirchener: Benzier, 1986), 122.

47) J. H. Neyrey, *The passion according to Luke*, 151.

48) Ibid., 152-155.

역 시편 30:2(ἐπὶ σοί κύριε ἤλπισα)와 25절(οἱ ἐλπίζοντες ἐπὶ κύριον)에 ‘희망하다(ἐλπίζω)’라는 동사가 나온다고 지적하고, 그리스도교 문헌에서 그리스어 ‘엘피스(ἐλπίς)’는 죽음 뒤에 다시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을 뜻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를 사도행전 2:26에서 인용된 시편 15:9에 나오는 ‘희망’과 연결시킨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사도행전 2:24-28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기 전에 베드로는 바로 앞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진 그분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말하며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가에 따르면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의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일어났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예수는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그의 십자가 죽음이다. 따라서 십자가 위의 예수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탁의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는 예수 죽음의 ‘필연성(δεῖ)’과 예수의 순종에 의한 하나님 계획의 실현이라는 문맥에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50] 이런 의미에서 예수의 마지막 말이 절망과 고뇌에 찬 버림받은 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외침(시 22:2)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신뢰를 표현하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기도(시 30:6)로 표현된 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자연스럽다.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베드로 설교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선언과 연대하며, 상호 해석적 주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곧 누가복음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설명해 주고, 반대로 베드로 설교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4. ‘의로운 분’: 누가복음 23:47과 ‘의인의 부활’

마가복음 15:39
ἰδὼν δὲ ὁ κεντυρίων ὁ παρεστηκὼς ἐξ ἐναντίας αὐτοῦ ὅτι οὕτως

49) E. Bons, “Das Sterbewort Jesu”, 97-101.
50) 하나님 계획의 실현과 그분의 약속을 믿으며 이에 순종하는 예수의 모습은 사도행전 7:59(‘주 예수님,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에서 스테파노의 죽음의 순간에서 재현되며, 그리스도의 이상적인 제자 상을 제시하고 있다.

ἐξέπνευσεν εἶπεν· ἀληθῶς οὗτος ὁ ἄνθρωπος υἱὸς θεοῦ ἦν

그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그가 그렇게 숨을 내쉰 것을 보고 나서 말하였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가복음 23:47

ἰδὼν δὲ ὁ ἑκατοντάρχης τὸ γενόμενον ἐδόξαζεν τὸν θεὸν λέγων· ὄντως ὁ ἄνθρωπος οὗτος δίκαιος ἦν

일어난 일을 보고 나서 백인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진정,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마가에서 예수의 죽음을 지켜 본 백인대장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반면에 누가에서는 '의로운 분'이라고 선언한다. 여기에서 그리스어 '디카이오스(δίκαιος)'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두고 학자들의 의견이 나뉜다. '디카이오스'는 일반적으로 '의로운'을 뜻하지만, '무죄한'(잠 6:17; 욘 1:14; 마 23:35; 27:4; 약 5:6)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51] 우선 이 단어를 정치적으로 '무죄한(innocent)'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나왔다. 곧 누가복음 23:47에서 백인대장은 예수의 '무죄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첫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수난 이야기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무죄한 사람이라고 언급한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눅 23:4.14-15.22).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말이 없다. 둘째, 헤로데 왕('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죄를 찾지 못한 것이다.' 눅 23:15)과 십자가 위의 예수 옆에 있던 죄수 하나도 예수를 무죄하다고 한다('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눅 23:41). 셋째, 예수의 심문과 사도행전에서의 바오로의 심문(행 25장-26장)의 병행 관계에서 누가는 두 사람 모두 정치적으로 죄가 없는 인물로 묘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52] 탈버트(C. H. Talbert)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무죄한 사람'이라는 말을 비교하여, 마가와 마태복음에서의 백인대장은 '그리

51) 참조, W. Bauer, W. F. Arndt and F. W. Gingrich, *A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195-196. '디카이오스'는 '의로운', '완벽한', '올바른', '선량한', '올곧은', '무죄한' 등으로 번역되어 왔다. E. J. Goodspeed, *Problems of NT Transl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5), 90.

52) 킬패트릭은 칠십인역에서 이 단어의 사용을 언급하면서 "누가복음 24장의 전체적인 주제와 '무죄한'이라는 의미가 잘 맞는다."고 주장한다. G. D. Kilpatrick, "A Theme of the Lucan Passion Story and Luke xxiii 47", *ThS* 3 (1943), 34-36. 스타인(R. H. Stein, *Luke*, 596)도 누가복음 23:47에서 그리스어 '디카이오스'는 '무죄한'을 뜻한다고 본다. 이 밖에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는 학자들로는 J. A. Fitzmyer, *Luke*, 1520; D. Schmidt, "Luke's 'Innocent' Jesus: A Scriptural Apologetic", R. J. Cassidy and P. J. Scharper, eds., *Political Issues in Luke-Acts* (New York: Orbis, 1983), 111-121 등이 있다.

스도론자(christologist)'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변증론자(apologist)'라고 지적한다.[53]

한편 브라운(R. E. Brown)은 여기에서 '디카이오스'의 의미는 '무죄함'을 포함하는 '정의로운(just)'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54] 그는 누가가 마가의 말을 변화시킨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칠십인역 시편 30:19에 '디카이오스'(κατὰ τοῦ δικαίου '의인을 거슬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둘째, 초대교회에서 '의로운 분(Righteous One)'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의 영향, 셋째, 예수의 죽음에 앞서 심문 장면에 상응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브라운이 제시한 마지막 이유에는 문제가 있다. 예수가 붙잡혀서 심문을 받는 장면에서 그의 '무죄함'을 선언하는 것이 주제였다면, 백인대장의 고백에서도 예수의 '무죄함'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백인대장의 선언은 예수의 인격을 증언하며 불의한 처형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불의하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사법적인 문맥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무죄한'이라는 의미가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무죄한'보다는 '의로운'이라는 의미가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마테라(F. J. Matera)는 '디카이오스'를 여기에서 '무죄한'이라고 본다면, 이 뜻과 누가복음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여 사도행전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주장한다.[55] 그는 누가문헌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 단어를 '의로운'으로 읽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며, 누가는 백인대장의 말에서 단순히 예수의 '무죄함'보다는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누가는 여기에서 '디카이오스'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요청에 부응하여 그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56]이라는 구약성경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예수의 의로움을 선언한다는 것이다.[57]

---

53) C. H. Talbert, *Literary Patterns*, *Theological Themes*, *and the Genre of Luke-Acts* (Missoula: Scholars Press, 1974), 225.

54) R. E. Brown, *The Death of the messiah*, 1163-1167.

55) F. J. Matera, "The Death of Jesus", 479.

56) G. Schenk, "δίκαιος", *TDNT* 2 (1964), 185.

57) 마테라의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에서 백인대장의 외침은 마가복음에서와 그 기능이 다르다. 마가복음에서 백인대장의 외침(15:39)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인 반면에 누가복음에서 백인대장의 외침은 그리스도론적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인격에 관한 선언이다. 둘째, 누가복음 23:47 전반부에서는 백인대장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말하였다(ἰδὼν δὲ ὁ ἑκατοντάρχης τὸ γενόμενον ἐδόξαζεν τὸν θεὸν λέγων·)'고 하는데, 여기에서 '독사조(δοξάζω)'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를 통해 당신의 구원행위를 드러낼 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본다면 백인대장의 찬미는 예수가 정치적으로 무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 이상이다. F. J. Matera, "The Death of Jesus", 479-484.

벡(B. E. Beck) 역시 누가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야기의 목적이 진정 '변증적'인가?라고 물으며 위에서 언급한 탈버트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예수의 '무죄함'이 누가복음 23장에서 강조된다고 해서, 23장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7절에서 그 점이 확인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벡은 백인대장의 말에서 부사 '진정(ὄντως)'이라는 말의 사용에 주의를 촉구한다. 누가복음에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들(16:15; 18:9; 20:20)이 있는데, 23:47에서는 예수를 그들과는 다르게 '진정'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23:47 전반부에서 백인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하였다.'와 관련하여, 이어서(47절 후반부) 백인대장이 단순히 예수의 무죄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가 어떻게 무죄한 이의 처형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58]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디카이오스'에 정관사를 더하여 명사로 사용하며 이를 예수를 부르는 호칭으로 만들었다. 베드로는 예수를 '거룩하고 의로운 분'(3:14)이라고 하고, 스테파노 역시 그를 '의로운 분'(7:52)이라고 하고 있으며, 하나니아스는 바오로에게 예수를 '의로운 분'(22:14)이라고 전한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이 단어는 '메시아적인 칭호'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59]

마테라는 결론적으로, 예수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무죄하였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관계를 지녔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60] 그는 누가복음 23:47에서의 이 단어의 사용을 사도행전 3:14; 7:52; 22:14의 메시아적 호칭을 준비하는 단계로 보자고 제안한다.[61] 이렇게 봄으로써 백인대장의 외침은 누가복음의 예수의 죽음 이야기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를 '의로운 분'이라고 선언하는 사도행전이라는 더 넓은 문맥 안에 자리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누가복음 23:47에서 백인대장이 예수를 묘사하는 데에 사용한 '디카이오스'가 단순히 '무죄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의로운'이라는 더 넓은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62] 이러한 견해는 아래에

---

58) B. E. Beck, "'Imitatio Christi' and the Lucan Passion narrative", 42.

59) 벡은 '디카이오스'가 '무죄한'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욱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며, 사도행전에서의 이 단어의 '메시아적' 사용을 제시한다. Ibid., 42-43.

60) F. J. Matera, "The Death of Jesus", 482.

61) 마테라는 누가가 복음서 23:47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도행전의 경우처럼 '메시아적인 칭호'로서 '디카이오스'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누가가 같은 단어를 복음서에서는 형용사로 사도행전에서는 명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Ibid., 482.

62) 존슨 역시 여기에서 '디카이오스'는 단순히 '무죄한'의 의미보다는 더 깊은 종교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도행전 3:14의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였다.'라는 베드로의 선포를 언급한다. L. T. Johson, *The Gospel of Luke*, Sacra Pagina

서 보는 것처럼 사도행전 2:25-28에서 예수의 부활을 예고한 본문으로 인용되고 있는 시편 15편과의 관계에서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편 16(MT)편의 전승에서는 부활에 관한 유대인들의 이해의 변화가 암시되고 있다. 시편 15:10의 칠십인역 번역은 히브리어 성경과는 달리 육체의 부활을 암시하는 표현('썩는 것을 보게 하지 않을 것이다')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번역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다.[63] 주전 150년경에 번역된 칠십인역 시편은 하스모니아 왕가 시대의 '메시아 기대'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곧 부패한 하스모니아 왕가와 로마제국 통치에 대항하는 왕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상이다. 그 가운데 시편 15:9-10은 메시아 시대의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사상을 반영한다. 역사의 종말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이다.[64] 그런데 이러한 시편 16편의 재해석은 바빌론 유배 이후 '스올(שאול)'에 관한 유대교 개념의 변화에서 가능해졌다고 추정할 수 있다. 곧 모든 사람은 죽어 '스올'로 간다는 구약성경의 이해가 바뀌어 의인의 영은 '스올'로 내려가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65] 헬레니즘과 페르시아의 '사후 보상 사상'의 영향으로 의인들은 다른 운명을 지녔다는 믿음이 발전하였고, '스올', 곧 저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가는 심판의 장소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사상이 점차 발전하여, 예수시대에 의인은 죽음에서 곧바로 하늘 낙원으로 간다는 이해로 옮겨간 것이다.[66]

의인이 죽어 낙원으로 간다는 사상은 예수 옆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두 명의 죄수와 예수가 나눈 이야기에서도 암시된다. 예수는 회개한 죄수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눅 23:43)라고 말한다. '낙원(παράδεισος)'은 본디 고대의 왕들이 소유하였던 정원을 뜻하였는데, 중간시대에는 의로운 사람을 위해 마련된 죽음 이후의 장소로 사용되었다.[67] 바오

Series 3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382.

63) 참조, 강선남, "오순절 베드로 설교와 구약성서", 135-136.

64) H. J. Fabry, "Messianism in the Septuagint", W. Kraus and R. G. Wooden, eds., *Septuagint Research*: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Study of the Greek Jewish Scriptures* (Atlanta: SBL, 2006), 203.

65) 유배 후기 유대교에서 '스올'의 결정적인 개념 변화에 관해서는 J. Jeremias, "ᾅδης", *TDNT* I, 147을 보라.

66) 한편 존스톤은 구약성경에서도 '스올'이라는 단어가 악인이나 고통 받는 의인 또는 죄인들이 가는 장소를 뜻한다고 하며, 인간의 죄악이나 사악함을 묘사하는 곳에서만 모든 인간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P. S. Johnston, "'Life in Hell?' Psalm 16, Sheol and the Holy One", R. S. Hess, G. J. Wenham, and P. E. Satterthwaite,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216-222. '스올'에 관한 이러한 지적은 구약성경 안에서도 이 단어에 관한 개념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로가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인 것처럼(예, 고후 5:8; 빌 1:23) 누가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처럼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무조건 '스올'이 아니라, 의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 나뉘게 된 것과의 연관성에서 누가복음 23:47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의로운 사람' 예수는 죽어서 저승으로 가지 않고 하늘의 낙원으로 올라간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의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러한 이해는 누가복음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언이라는 두 본문 사이의 상호 관계성을 지시해 준다. 십자가 위의 예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죽음에서의 보호와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에게 신뢰를 표현하며 편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는다. 이를 본 백인대장은 그분이 단순히 '무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분이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5. '가슴을 치다': 누가복음 23:48과 사도행전 2:37

누가복음 23:48

καὶ πάντες οἱ συμπαραγενόμενοι ὄχλοι ἐπὶ τὴν θεωρίαν ταύτην, θεωρήσαντες τὰ γενόμενα, τύπτοντες τὰ στήθη ὑπέστρεφον.

함께 왔던 군중은 모두 그 광경을 보고 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사도행전 2:37

Ακούσαντες δὲ κατενύγησαν τὴν καρδίαν

사람들은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찔렸다.

누가는 마가에는 없는 군중들의 반응을 묘사하며 예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의 결론을 제시한다(23:48). 백인대장의 선언 뒤에,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군중들은 자기들의 '가슴을 치며(τύπτοντες τὰ στήθη)' 돌아갔다. 누가복음 18:13에서 세리가 '가슴을 치는' 행위는 죄책감과 참회의 마음을 표현한다. '가슴을 치는 행위'는 또한 애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68] 누가복음 23:48에

67) 고후 12:4; 계 2:7에서 이 단어는 하늘의 지복의 장소를 가리킨다. 『아브라함의 묵시록』 21절은 의인은 죽어서 곧바로 하늘의 열매와 지복을 누리는 낙원으로 향하는 반면에, 악인은 지하세계로 간다고 한다. 『에녹 1서』 60:8, 23; 61:12; 70:4는 의인은 이미 생명의 정원에 살고 있다고 한다. C. H. Talbert, *Reading Luke: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Third Gospel* (New York: Crossroad, 1982), 221.

68) 요세푸스는 『유대고대사』, 7.10.5 §252에서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데에 이 단어를 사용하였다.

서 이를 애도의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죽음에 대한 애도일 것이고,[69] 참회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순히 애도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수의 죽음을 보고 느낀 군중들의 심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참회'는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10:13; 11:32; 13:3, 5; 15:7, 10; 16:30; 17:3, 4).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참회'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군중의 반응을 묘사하는 표현이기도 하다.[70] 하나님이 주님과 메시아로 삼은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누가복음 23:48에서와 비슷한 말로 묘사되어 있다(행 2:37 '사람들은 마음이 찔렸다'). 따라서 이 표현은 군중들이 그 사건에 마음이 동요하였고, 예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죄책감과 참회의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71] 이처럼 십자가 위의 예수의 죽음을 본 군중과 예수의 죽음에 대한 베드로의 말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아주 유사하다. 사람들의 이러한 참회의 감정은 사도행전의 베드로 설교에서는 회심으로 이어진다('그때 그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행 2:41). 따라서 누가복음 23:44-49에서 백인대장의 역할은 사도행전 2:17-41에서 베드로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백인대장의 고백은 청중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누가는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들이 참회의 마음이 든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를 들은 이들이 느낀 감정과 연결시키며 두 본문이 상호해석의 열쇠로 작용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이야기 흐름은 누가의 정교한 문학 작업의 결과이며 여기에서도 그의 신학적 통일성을 볼 수 있다.

6. 나오는 말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눅 23:44-49)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한 오순절 베드로 설교(행 2:14-41)를 놓고 두 본문 사이의 상호 관계성에 기초하여 누가의 '예수의 죽음' 이해, 곧 그의 십자가 신학을 고찰하

---

69) J. A. Fitzmyer, *Luke*, 1520. 예수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의미로 본다.

70) "이처럼 사람들이 참회하는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준비한다." R. C. Tannehill,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 1: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4), 166.

71) 놀랜드(*Luke*, 1159)는 이를 '후회(regret)'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그들이 '가슴을 치는 행위'나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말은 '후회'보다는 '죄책감'이나 '참회'의 감정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누가는 '예수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그리고 예수는 그 계획에 순종하는 아들로 그려놓았다.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한 마지막 말(눅 23:46; 시 30:6 인용)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그분에게 온전히 의탁한다. 이에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우선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알리고(행 2:23), 하나님이 예수를 '죽음의 고통'에서 구하시고 '썩는 것을 보게 하지 않으시리라'는 부활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함으로써(행 2:24-28), 예수의 믿음이 응답받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누가는 예수의 마지막 순간에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하며 예수의 죽음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날들'로 향하고 있음을 표현하였고(눅 23:44-45), '마지막 날들'은 오순절의 성령강림으로 그 성취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한다(행 2:17-21; 요엘 인용문). 더불어 누가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분이었다(눅 23:47)고 선언한다. 예수가 의롭다는 것은, 유대교 부활사상에서 의인은 죽어서 저승으로 가지 않고 하늘 낙원으로 간다는 이해가 암시된 시편 15편(행 2:25-28 인용문)에서 뒷받침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며 주님으로 삼은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다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죄책감에 괴로워한 것과(행 2:37) 상응하여 누가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둔 예수를 본 군중들 역시 참회의 마음이 들었다고 전한다(눅 23:48).

이처럼 누가복음 23:44-49와 사도행전 2:14-41이 상호 해석적인 열쇠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두 본문 사이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누가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구원 약속을 신뢰하고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십자가 위의 예수를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예수의 죽음'을 치밀하며 정교한 문학 작업을 통해 그려놓았다.

<주요어>(Keywords)

누가의 십자가 신학, 본문 상호성, 예수의 최후의 말,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의 순종,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신뢰, 누가의 문학 작업

Luke's theology of the cross, Intertextuality, The last word of Jesus, The plan of God and Jesus' obedience, The trust of Jesus in God, Luke's literary work.

(투고 일자: 2011. 8. 20, 심사 일자: 2011. 8. 25, 게재 확정 일자: 2011. 9. 21)

<참고문헌>(References)

강선남, "오순절 베드로 설교와 구약성서: 사도행전 2,14-41에 나타난 구약성서의 전승과 해석과 적용", 박사학위 논문(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A. 바이저, 『시편 (1)』, 김이곤 역(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2).

Anderson, A. A., *2 Samuel*, WBC 11, Dallas: Word Books, 1989.

Archer, G. L., and Chirichigno, G., *Old Testament Quotations in the New Testament: A Complete Survey,* Chicago: Moody Press, 1983.

Barrett, C. K.,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1. ICC, Edinburgh: T & T Clark, 1994.

Bock, D. L., *Luke 9:51-24:53*,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6.

Bock, D. L., *Proclamation From Prophecy and Pattern: Lukan Old Testament Christology*, JSNTSup 1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Bons, E., "Das Sterbewort Jesu nach Lk 23,46 und sein alttestamentlicher Hintergrund", *BZ* 38 (1994), 93-101.

Briggs, C. A., *The Book of Psalms*, vol. 1.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Edinbrugh: T. & T. Clark, 1969.

Brown, R. E., *The Death of the Messiah, from Gethsemane to the Grave: A Commentary on the Passion Narratives in the Four Gospels*, Anchor Bible Reference Library, New York: Doubleday, 1994.

Bruce, F. F., "The Holy Spirit in the Acts of the Apostles", *Interpretation: a Journal of Bible and Theology* 27 (1973), 166-183.

Bruce, F. F.,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Greek Text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68.

Cathcart, K. J., "Day of Yahweh", *ABD* II, 84-85.

Craigie, P. C., *Psalms 1-50*, WBC 19, Dallas: Word Books, 1983.

Dupont, J., "Messianic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in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Salvation of the Gentiles: Essay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John R. Keating, trans., New York: Paulist Press, 1979, 103-128.

Fabry, H. J., "Messianism in the Septuagint", W. Kraus and R. G. Wooden, eds., *Septuagint Research: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Study of the Greek Jewish Scriptures,* Atlanta: SBL, 2006, 193-205.

Fitzmyer, J. A., *The Acts of the Apostl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31, New York: Doubleday, 1998.

Fitzmyer, J. A.,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X-XXIV*, AB 28A, New York: Doubleday, 1985.

Goodspeed, E. J., *Problems of New Testament Transl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1945.

Green, J. B., *The Gospel of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97.

Haenchen, E.,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Commentary*, Noble and G. Shinn, trans., Oxford: Blackwell, 1985.

Hiers, R. I., "Day of the Lord", *ABD* II, 82-83.

Holtz, T., *Untersuchungen über die Alttestamentichen Zitate bei Lukas,* Berlin: Akademie-Verlag, 1968.

Jeremias, J., "ᾅδης", *TDNT* I, 146-149.

Jeremias, J., "Zum Problem der Deutung von Jes. 53 im palästinischen Spät-judentum", *Aux sources de la tradition chrétienne,* Neuchâtel: Delachaux, 1950, 113-119.

Johnson, L. T., *The Gospel of Luke*, Sacra Pagina Series 3,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1991.

Johnston, P. S., "'Life in Hell?' Psalm 16, Sheol and the Holy One", R. S. Hess, G. J. Wenham, and P. E. Satterthwaite, eds., *The Lord's Anointed: Interpretation of Old Testament Messianic text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5, 216-222.

Juel, D., "Social Dimensions of Exegesis: The Use of Psalm 16 in Acts 2", *CBQ* 43 (1981), 543-556.

Kilpatrick, G. D., "A Theme of the Lucan Passion Story and Luke xxiii 47", *TS* 3 (1943), 34-36.

Larkin, W. J., *Acts*, The IVP New Testament Series, Downers Grove,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5.

McCaffrey, U. P., "Psalm Quotations in the Passion Narratives of the Gospels", *Neot* 14 (1981), 73-89.

Marshall, I. H., *Luke: Historian and Theologian,*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70.

Marshall, I. H., *The Gospel of Luke: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1978.

Matera, F. J., "The Death of Jesus according to Luke: A Question of Sources", *CBQ* 47 (1985), 475.

Moyse, S., "Intertextuality and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S. Moyse, ed.,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Essays in Honour of J. L. Nort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14-41.

Neyrey, J. H., *The Passion according to Luke: A Redaction Study of Luke's Soteriology,* Mahwah: Paulist, 1985.

Nolland, J., *Luke 18:35-24:53*, WBC 35c, Dallas: Word, 1993.

O'Brien, P. T., "Mission, Witness, and the Coming of the Spirit", *BBR* 9 (1999), 203-214.

Pervo, R. I., *Acts: A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Pesch, R., *Die Apostelgeschichte*. vol. 1, EKKNT 5/1-2, Neukirchener: Benzier, 1986.

Pao, D. W. and Schnabel, E. J., "Luke", G. K. Beale and D. A. Carson, eds.,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Sawyer, J. F. A., "Why Is a Solar Eclipse Mentioned in the Passion Narrative (Luke XXIII 44-45)?", *JTS* 23 (1972), 124-128.

Schenk, G., "δίκαιος", *TDNT* 2 (1964), 185.

Schmidt, D., "Luke's 'Innocent' Jesus: A Scriptural Apologetic", R. J. Cassidy and P. J. Scharper, eds., *Political Issues in Luke-Acts,* New York: Orbis, 1983, 111-121.

Schneider, G., *Das Evangelium nach Lukas*, vol 2, Ökumenischer Taschenbuch -kommentar 3, Gütersloh: Mohn, 1977.

Schwemer, A. M., "Jesu letzte Worte am Kreuz(Mk 15,34; lk 23,46; Joh 19,28ff)", *TBei* 29 (1998), 5-29.

Stein, R. H., *Luke*, The New American Commentary 24, Nashville: Broadman, 1992.

Strack, H. L. and P. 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h: Das Evangelium nach Markus, Lukas und Johaness und Die Apostelgeschite*, vol. 2, München: Beck'sche, 1924.

Talbert, C., *Reading Luke: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Third Gospel,* New York: Crossroad, 1982.

Tannehill, R., *The Narrative Unity of Luke-Acts: A Literary Interpretation,* vol. 1: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4.

Taylor, V., *The Passion Narrative of St Luke: A Critical and Historical Investig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1972.

Tyson, J. B., *The Death of Jesus in Luke-Act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86.

Zehnle, R., "The Salvific Character of Jesus' death in Lucan Soteriology", *TS* 30 (1969), 420-444.

<Abstract>

Luke’s Understanding of Jesus’ Death (Lk 23:44-49)

Dr. Sun-Nam Kang
(Sog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Luke’s understanding of Jesus’ death which has been described in Luke 23:44-49. For this purpose, we have conducted examinations utilizing the approach of intertextuality between Luke 23:44-49 and the Peter's Pentecost speech in Acts 2:14-41.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Luke 23:44-49, Jesus has been portrayed as the obedient son of God doing His will. This theme has been expressed by the last word of Jesus on the cross (Luke 23:46; Ps. 30:6 quotation), exposing Jesus’ complete trust in God. Through the lips of Peter, Luke says that Jesus' death was ‘the plan of God’(Acts 2:23), and proclaims that the promise of God about the resurrection of Jesus has been fulfilled (Acts 2:24-28). In Luke, the death of Jesus was on the way to the eschatological ‘last days’(Luke 23:44-45), and the ‘last days’ have been inaugurated by the Jesus’ pouring out of the Spirit upon the disciples on the Pentecost(Acts 2:17-21; Joel 2:28-32 LXX quotation). Furthermore, Luke declares that Jesus was not only the ‘innocent’ but also the ‘righteous’ one(23:47). This notion is supported by Psalm 15 LXX(Acts 2:25-28 quotation) in which it is implied that according to the late Jewish thought about life after death: the righteous one does not go down to ‘sheol’ but ascends directly to the paradise in heaven. The reference of Luke about the people’s guilty feeling about Jesus’ death in Peter's speech(Acts 2:37), appears similarly in the death of Jesus(Luke 23:48).

Luke 23:44-49 and Acts 2:14-41 are the hermeneutical keys for each other and illustrate the dynamics of the texts. Luke saw Jesus on the cross, who had been faithful to God and who entrusted himself to God until the last moment. On the basis of this understanding, Luke depicted the death of Jesus through a sophisticated literary work.